

2019. 6. 11



▲ 스몰캡

Analyst 윤주호

02. 6454-4876

juho.yoon@meritz.co.kr

RA 이창석

02. 6454-4889

Not Rated

적정주가 (12개월) -

현재주가 (6.10) 3,895 원

상승여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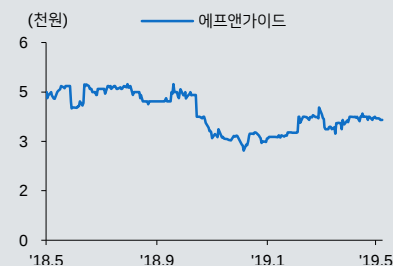
시가총액	428억원
발행주식수	1,100만주
유동주식비율	41.67%
외국인비중	0.00%
52주 최고/최저가	5,060원/2,900원
평균거래대금	0.1억원

주요주주(%)

화천기계 외 11 인	48.89
머니투데이	7.03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6	14.6	-15.0
상대주가	-2.2	12.1	-0.7

주가그래프



에프엔가이드 064850

금융데이터 제공업의 강자

- ✓ '00년 설립, '13년 코넥스 시장 상장한 금융데이터 및 평가전문 기업
- ✓ 금융정보제공을 웹사이트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 등 사업 영위
- ✓ 주요 고객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은행 등 금융기관
- ✓ 대부분의 매출이 데이터 피딩 및 온라인 매출에 기반
- ✓ '18.7월 에프엔가이드가 와이즈에프엔 흡수합병

금융데이터 정보제공 사업 영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을 주로하는 금융데이터 정보제공 전문기업이다. 주요 고객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및 대학교 등 연구기관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웹사이트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솔루션 제공, SaaS 등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영위한다.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

초기 데이터를 축적하는 비용이 크고 데이터가 일정부분 축적되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데이터 제공 비즈니스는 규모와 커버범위가 넓을수록 경쟁력을 가진 특성을 지닌다. 기존에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주식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로 사업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기존 기관고객 위주에서 개인고객(B2C) 확장을 위한 '레스프레소' 앱 등을 출시하여 모바일 시대 대응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중요

데이터를 사오는 비용 외에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은 '14년 26%, '15년 28%, '16년 29%, '17년 53%, '18년 58%로 높아지고 있다. 매출액 성장률이 인건비 증가율보다 높으면 실적은 개선된다. '16년 대비 '17년과 '18년 매출액성장률이 인건비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실적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사 통폐합 등의 외부환경은 부정적이나 법인당 수량과 등록ID 수 증가는 긍정적이다.

*본 자료는 한국거래소 코넥스 기업분석보고서 발간지원(KRP) 사업에 따라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지배주주)	EPS (원) (지배주주)	증감률 (%)	BPS (원)	PER (배)	PBR (배)	EV/EBITDA (배)	ROE (%)	부채비율 (%)
2014	89.7	9.7	7.5	108	-26.9	1,563	17.2	1.2	4.1	7.0	14.7
2015	95.5	11.0	13.1	188	74.8	1,711	18.0	2.0	10.5	11.5	13.6
2016	97.2	6.0	9.7	139	-26.0	1,810	22.7	1.7	13.3	7.9	15.6
2017	98.7	11.4	21.9	314	125.7	2,104	9.9	1.5	11.1	16.1	31.1
2018	114.3	17.9	16.2	211	-32.8	2,840	16.0	1.2	20.7	7.0	58.1

1. 기업개요 및 산업동향

금융데이터 및 평가전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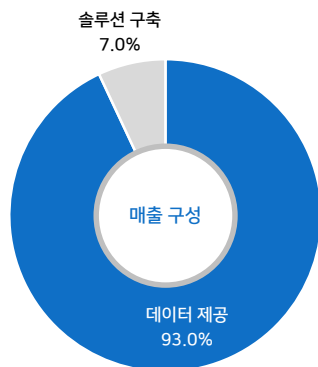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영위

에프앤가이드가 제공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주요 고객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대학교,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다. 최대주주는 화천기공 및 관계사 48.9% 등이다.

전체 매출의 93%는 데이터 제공 비즈니스이며 솔루션 구축은 7%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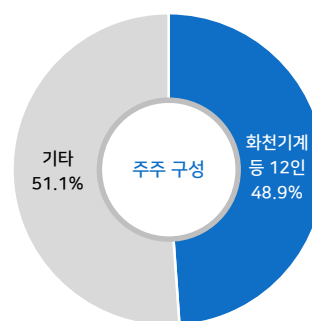
관련 제품으로는 Fnguide.com 분석리포트 및 금융데이터 조회 및 IRBridge(상장기업 IR전략 수립 지원) 등 금융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비즈니스, ASP Service (고객사 사이트 주자정보 링크서비스) 및 Data Feeding (대용량 데이터 전송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 비즈니스가 있다. Dataguide, Quantiwise (엑셀기반의 금융데이터 분석 툴), FnSpectrum(펀드 분석 솔루션) 및 Fnfive(채권분석솔루션) 등의 솔루션 제공한다. SI Project, 금융 인덱스 개발, 펀드/대체투자자산 평가, 리스크관리 및 컨설팅을 하는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사업도 영위한다.

그림1 매출구성 (2018)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주구성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동향

진입장벽이 있는 금융데이터 제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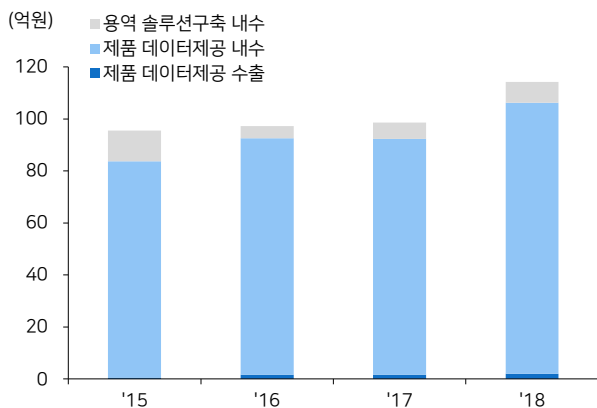
금융 데이터 서비스 분야는 다른 온라인 비즈니스와 달리 대규모의 자본과 시간 투입 필요하다. 금융데이터 서비스는 경영 및 재무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축적된 노하우,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초기 서버 비용 등의 설비투자와 인력 투입 등의 개발비 지출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자본이 필요한 비즈니스 영역이다.

규모가 크고 커버범위가 넓을수록 경쟁력을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초기 성장을 경험한 이후에 M&A나 인력확충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성장이 가능하다. 미국 등 선진금융시장에서 수요와 수익성이 검증된 사업 분야이나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발달 시작하였다. 과거 지면과 유선 방식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유통방식 변화 중이다.

1:1로 매칭되는 경쟁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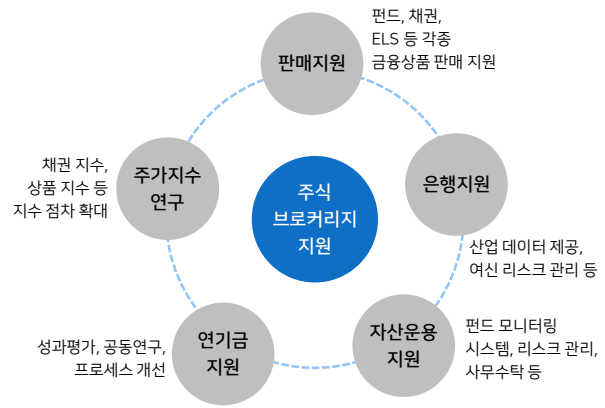
광범위하게는 금융데이터를 유료로 서비스하는 업체이나 경쟁사 특징이 어려운 환경이다. 국내 서비스하는 외국업체들은 전세계를 커버(ex. Bloomberg)와는 인지도에서 열위이나 국내시장 특화된 데이터 등은 강점이다.

그림3 매출 세부실적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주식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사업영역 확대



자료: 에프앤가이드,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2. 투자포인트(Investment Points)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

데이터를 초기에 축적하는 비용이 크며 데이터가 일정부분 축적되어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초기 시장 선점을 통한 진입장벽 구축이 가능하다. 허가업은 아니나 증권사, 자문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 정보 제공업의 시장은 제한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적은 장점이 있다. 다른 회사가 초기 자본을 들여서 들어오기에는 작은 시장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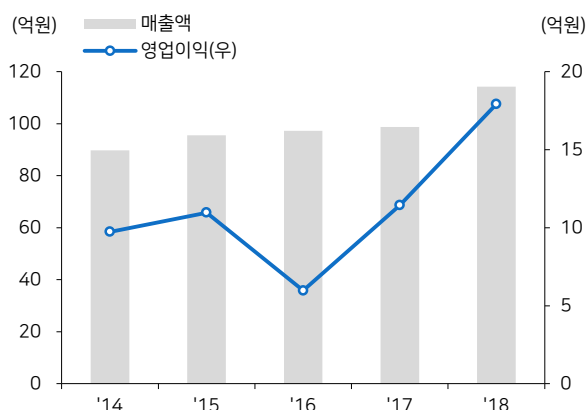
동사는 기업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제공 및 보유가 강점으로 자사가 영업을 하기보다는 데이터가 필요한 고객이 와서 매출이 발생하는 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주식시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 존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가 주로 증권업계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 시장 하락이나 주식거래 대금 감소 등으로 인해 증권사 실적 악화되면 중기적으로 금융정보 소비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기관 투자자 고객 위주에서 B2C(개인투자자)로의 사업 다변화를 시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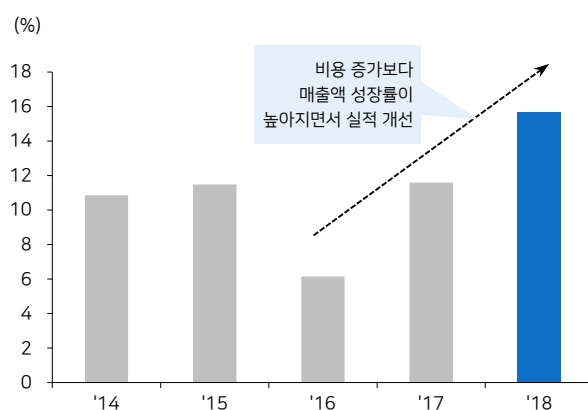
증권사 통폐합 등으로 가입규모는 줄어들었으나 법인당 수량은 증가하는 추세, 등록 ID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림5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연도별 영업이익률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꾸준히 성장하는 국내 내수 데이터 제공 서비스

국내 내수 데이터 제공 서비스 매출액은 '15년 83억원, '16년 91억원, '17년 91억원, '18년 104억원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다. 눈에 보이는 매출액의 성장에 더더 보이는 구간('16~'17년)은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SI의 매출 발생 여부에 따라 전체 매출 변동 영향이 있었다. '12년~'15년 평균 10~20억원 매출을 보이던 SI 사업분야가 '16년 4.7억원, '17년 6.4억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펀드평가 등 금융권, 국공립기관 등과 협력하여 Raw 데이터 심어주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SI업체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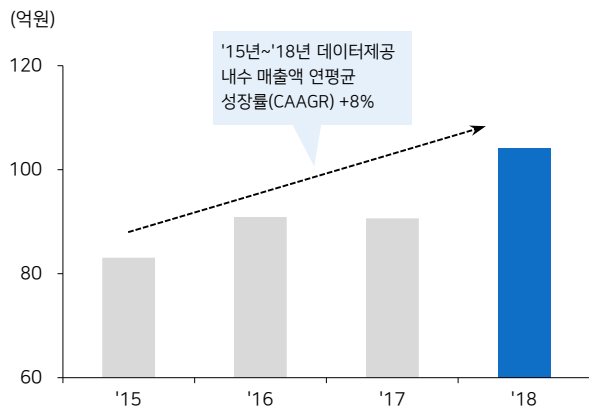
매출액 대비 인건비 중요

데이터를 코스콤에서 사오는 비용 이외에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원가에 있어서 인건비가 중요하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4년 26%, '15년 28%, '16년 29%, '17년 53%, '18년 58%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매출액 성장률 대비 인건비 성장률이 낮아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나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라 전사 이익률에 영향이 존재한다. '16년 대비 '17년과 '18년 매출액성장률이 인건비 증가율보다 커지면서 전사 실적이 개선되었다.

신규사업을 통한 성장성 강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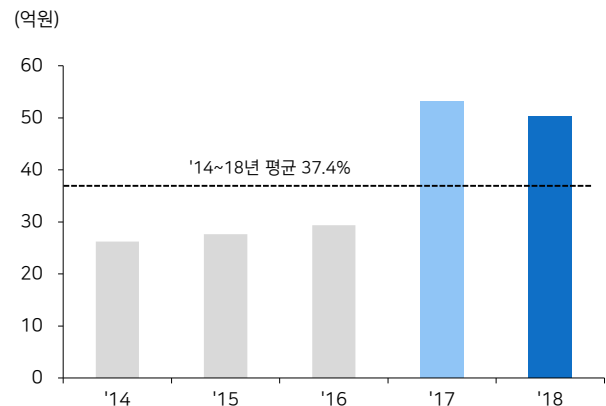
'18.1월 아시아 12개국 주요 기업에 대한 분석 리포트 원문 제공 서비스 런칭하였으며 '18.5월 개인투자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 주요 리포트 요약본 제공하는 '레스프레소' 앱을 출시하였다. (B2C로 확장) CompGlobla은 글로벌 금융데이터 기업인 FACTSET과 제휴하여 리서치, 컨센서스, 지분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투자서비스 제공한다.

그림7 데이터 제공매출은 꾸준히 증가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에프앤가이드 (064850)

Income Statement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89.7	95.5	97.2	98.7	114.3
매출액증가율 (%)	-6.2	6.4	1.8	1.5	15.8
매출원가	39.4	41.9	41.9	0.0	0.0
매출총이익	50.4	53.6	55.3	98.7	114.3
판매관리비	40.6	42.6	49.4	87.2	96.3
영업이익	9.7	11.0	6.0	11.4	17.9
영업이익률	10.8	11.5	6.2	11.6	15.7
금융손익	1.9	2.5	1.4	9.0	-6.0
종속/관계기업손익	-0.5	1.2	1.2	3.4	5.1
기타영업외손익	-5.1	-0.1	0.5	-1.4	0.8
세전계속사업이익	6.1	14.5	9.0	22.4	17.8
법인세비용	-1.4	1.4	-0.7	0.5	1.7
당기순이익	7.5	13.1	9.7	21.9	16.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7.5	13.1	9.7	21.9	16.2

Statement of Cash Flow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영업활동 현금흐름	17.7	16.3	11.4	15.4	19.9
당기순이익(손실)	7.5	13.1	9.7	21.9	16.2
유형자산상각비	1.6	1.7	1.7	1.7	2.7
무형자산상각비	1.5	1.3	1.6	1.2	1.9
운전자본의 증감	-4.0	-2.8	-5.9	-5.9	-10.1
투자활동 현금흐름	-8.1	5.5	-28.6	-41.1	-100.9
유형자산의증가(CAPEX)	-1.6	-1.5	-1.4	-56.3	-78.2
투자자산의감소(증가)	-0.7	0.0	-0.1	-1.8	-5.4
재무활동 현금흐름	-2.6	-2.8	-2.8	24.5	92.5
차입금의 증감	0.0	0.0	0.0	27.2	104.5
자본의 증가	0.2	0.0	-0.6	0.0	200.7
현금의 증가(감소)	7.1	19.0	-20.0	-2.0	12.0
기초현금	11.7	18.8	37.8	17.8	15.8
기말현금	18.8	37.8	17.8	15.8	27.9

Balance Sheet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유동자산	86.0	96.6	104.0	91.3	101.6
현금및현금성자산	18.8	37.8	17.8	15.8	27.9
매출채권	8.0	5.6	7.9	8.3	15.8
재고자산	0.0	0.0	0.0	0.0	0.0
비유동자산	38.8	38.7	41.7	100.9	393.0
유형자산	4.4	4.2	3.8	58.2	137.6
무형자산	3.5	2.3	2.9	7.5	178.4
투자자산	19.2	20.4	21.8	23.5	28.9
자산총계	124.8	135.3	145.7	192.1	494.6
유동부채	12.9	11.5	14.9	15.3	28.5
매입채무	0.5	0.6	1.3	1.3	1.5
단기차입금	0.0	0.0	0.0	0.0	0.0
유동성장기부채	0.0	0.0	0.0	0.0	0.0
비유동부채	3.1	4.7	4.7	30.3	153.2
사채	0.0	0.0	0.0	0.0	54.0
장기차입금	0.0	0.0	0.0	27.2	75.3
부채총계	15.9	16.2	19.6	45.6	181.7
자본금	34.8	34.8	34.8	34.8	55.1
자본잉여금	11.8	11.8	11.1	11.1	191.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0	4.4
이익잉여금	62.9	73.2	80.1	100.6	110.9
비지배주주지분	0.0	0.0	0.0	0.0	0.0
자본총계	108.8	119.2	126.1	146.6	312.9

Key Financial Data

	2014	2015	2016	2017	2018
주당데이터(원)					
SPS	1,288	1,371	1,396	1,417	1,493
EPS(지배주주)	108	188	139	314	211
CFPS	312	274	248	294	388
EBITDAPS	185	201	133	206	295
BPS	1,563	1,711	1,810	2,104	2,840
DPS	40	40	40	50	50
배당수익률(%)	2.2	1.2	1.3	1.6	1.5
Valuation(Multiple)					
PER	17.2	18.0	22.7	9.9	16.0
PCR	5.9	12.4	12.7	10.5	8.7
PSR	1.4	2.5	2.3	2.2	2.3
PBR	1.2	2.0	1.7	1.5	1.2
EBITDA	12.9	14.0	9.3	14.4	22.6
EV/EBITDA	4.1	10.5	13.3	11.1	20.7
Key Financial Ratio(%)					
자기자본이익률(ROE)	7.0	11.5	7.9	16.1	7.0
EBITDA 이익률	14.4	14.7	9.5	14.6	19.7
부채비율	14.7	13.6	15.6	31.1	58.1
금융비용부담률	0.0	0.0	0.0	0.3	1.9
이자보상배율(x)				39.4	8.1
매출채권회전율(x)	8.4	14.0	14.4	12.2	9.5
재고자산회전율(x)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6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6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6월 1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윤주호,이창석)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7.7%
중립	2.3%
매도	0.0%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